

“부활의 현재성,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리리로 가라 하시는 이유 무너진 리더십과 사명의 회복

2024년 남가주교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31일 오전 5시 30분에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서 남가주교협(회장 최영봉 목사) 주관으로 성대히 열렸다.

예배는 최영봉 목사의 사회로, 기도 최학량 목사(증경회장), 성경 봉독 심진구 목사(부회장), 찬양 충현선교교회 성가대, 설교 민중기 목사(KCMUSA 이사장), 봉헌 기도 권영신 장로(부회장), 특송 조준석 목사(음악부장), 특별기도 인도 샘신 목사(수석부회장), 축하연주 정완기 목사(증경회장), 축하인사 인도 정요한 목사(부회장), 광고 최영하 목사(총무), 축도 한기형 목사(증경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민중기 목사는 마태복음 28:1-10절을 본문으로 채택,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다섯 번 나타나셨는데 계속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마리아에게 먼저



2024년 남가주교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31일 오전 5시 30분에 충현선교교회에서 성대히 열렸다. ©기독일보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녀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것이고, 암흑 같은 절망의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환란과 기근, 전염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 믿음의 해체 수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도 예수님

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를 바란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후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회복시키셨다”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믿

기를 바란다.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다시 주시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함께하신다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선배 목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경험을 나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못

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면서 과거에도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미래의 내 몸의 부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은 현재의 부활이다. 역사적으로나 미래에도 부활하시지만, 현재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다”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나셨다”고 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미국과 한인교회와 이민사회, 남북한 평화와 복음 통일, 남가주와 세계교계 부흥, 우크라이나와 세계평화, 악법폐지 서명운동 등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 후에는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공동대표), 김영안 총영사(LA 영사관), 제임스 안 회장(LA 한인회),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대표),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총회장)가 부활절 인사를 전했다. 토마스 멩 기자

168년 된 UMC 산하 기독대학, 재정난으로 폐쇄



버밍엄 서던 대학. © www.bsc.edu

미국 연합감리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와 연계된, 앨라배마주의 한 인문대학이 재정난으로 인해 오는 5월 31일 닫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버밍엄-서던대학(Birmingham-Southern College) 이사회는 3월 26일 투표에서 이 같이 결정했

다. BSC 이사회 의장인 키스 톰슨(Keith Thompson) 목사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대학,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에게 비극적”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참혹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우리의 노력은 모든 관련된 사람들에게 최대한 원활한 편입학을 보장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은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여러 자본 프로젝트로 인해 거액의 부채가 발생했고 2009년 금융 시장 붕괴로 약 2,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는 등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6면에서 계속

리처드 도킨스, 기독교의 쇠퇴 우려

레이첼 존슨과의 인터뷰서 “기독교 정신 중요하게 여겨”

유명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박사가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묘사하며 유럽에서 신앙의 문화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킨스 박사는 부활절을 맞아 영국 언론인 레이첼 존슨(Rachel Johnso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



리처드 도킨스. ©LBC 유튜브

독교 국가이며,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를 믿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광가성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대한예수교 감리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홍 담임목사

예수 부활하셨네

행복한 교회 (마11:28)
 상급 받게 하는 교회 (계22:12)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마24:14)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7:20
 주일 2부 오전 9:10
 주일 3부 오전 11:20
 주일 4부(대학/청년부) 오전 2:00
 EM(영어성인) 주일 오전 9:00, 11:20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 저녁 7:30
 특별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찬양 5:15)
 토 오전 6:00 (찬양 5:45)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발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발드	오후 04:30(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CBSTV CH 20.12	오전 09:0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9:0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W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활화산처럼 놀라운 부흥 임하길, 목회는 그 불꽃 지키기”

3월 31일(주일) 부활절을 맞아 OC교계가 연합예배를 새벽 5시 30분에 나침반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라”는 주제로 드렸다.

이창남 목사(OC교협 부회장, 주님의 손길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부활절 연합예배는 나침반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 민경엽 목사(OC교협 이사장, 나침반교회)의 환영사, 배기호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의 대표기도, 은혜한인교회 중창단의 특별 찬양, 윤우경 권사(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증경이사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권혁빈 목사(씨드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권 목사는 “죽음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죽음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죽음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데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어느 중간에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다른 시간의 세계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한다. 삶이 끝나면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실패자들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과 소망



3월 31일(주일) 부활절을 맞아 OC교계가 연합예배를 새벽 5시 30분에 나침반 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이창남 목사(OC교협 부회장, 주님의 손길교회)의 인도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의 설교로 드렸다. ©OC교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실패, 좌절도,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삶에도 실패가 참 많다. 자녀교육을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삶의 구석 구석에 실패의 위험들이 많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식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교통 사고도 나고 암에 걸려 죽기도 한다. 우리는 그 앞에 절망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그것을 회복하시

고 바꾸신다. 활화산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OC에 분명히 올 거라고 믿는다. 그 불빛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불꽃을 일으킬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는다.”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은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장의 얼굴을 본다. 수십 년 동인이 모든 상황을 이겨온 선장의 얼굴을 보

면이 이 싸움이 싸울 만한 싸움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모든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이시다.”

권 목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국적인 것이 느껴진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부활의 영성,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을 되돌릴 수 있다. 그 승리의 전율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한다”고 말씀을 마쳤다. 설교에 이서 한기홍 목사, 조봉남 회장(OC한인회), 심상문 목사(OC교협 회장, 갈보리 선교교회)의 부활절 특별 축사를 전했다.

레위기장단의 현금특송과 김성수 장로(OC교협 후원이사, 장로협의회 증경회장)의 현금기도, 조진용 목사(OC교협 총무, 바인교회)의 광고, 박용덕 목사(OC교협 증경회장, 남가주 빛내리교회)의 축도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부활의 아침, 거룩한 세마포 준비해 주님 맞으라”

베이커스 필드 지역 교계가 연합해서 2024년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3월 31일 주일 아침 6시에 가주목양교회(안신기 목사)에서 드렸다.

안신기 목사(가주목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연합예배는 고의용 목사(사랑의교회)의 대표기도, 이윤형 목사(산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고린도전서 15: 3~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윤형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시작했다.

그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야에 대한 예언들,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후 가죽 옷을 입으신 사건, 뱀에게 하신 예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어린양의 고기를 먹도록 명령하신 것 등을 하나씩 짚어 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추적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준비한 숫양은 곧 예수님이였다. 세상의 모습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탈출시킬 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



베이커스 필드 지역 교계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31일 주일 아침 6시에 가주목양 교회에서 드렸다. ©가주목양교회

게 한 것은 고난 당할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었다. ‘주께서 친히 짐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말씀에서, 성육신을 약속하셨다. 이사가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와 그리고 이사가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는 부활에 대한 예언을 시편 16:10(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부활하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어야 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 보혈의 피

를 매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우리 목숨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 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것은 당연히 죄이다. 그 주님의 피를 바르고, 내 자신을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온전함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이윤형 목사는 우리가 세상 잡념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이 부활의 능력과 대속의 사건을 더디게 믿고, 말씀을 둔하게 쫓아간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란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 곧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을 준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오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베이커스 필드 모든 교회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광고, 폐회찬양에 이어 조태준 목사가 축도함으로 2024년도 부활절 베이커스 필드 교계 연합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쳤다. 주디한 기자

민족학교 장학금 신청 4월 15일까지

민족학교(사무국장 김진우)가 한인 청소년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계 청년들을 위한 ‘2024 민족학교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민족학교 장학금은 민족학교 창립자 중 한 분인 (고) 정봉 최진환 박사를 기리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올해는 뿌리, 흥이, 드림 장학생 3명에게 각 2000 달러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한인 또는 아태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2024년 가을학기 입학 예정자다. 특별히 드림 장학금은 서류미비 학생을 위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

미 전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수상자는 5월 18일로 예정된 장학금 수여식(직접 또는 온라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추천서, 에세이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를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http://krcla.org/scholarship>)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scholarship@krcla.org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 간증 집회

영화같은 이야기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은 아버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고봉준 목사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연약함과 고통 중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간증 집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봉준 목사

-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여의도순복음 총회) 남부지방회 소속 목사
- 아름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협동목사
- 사마리아 교정선교회 대표목사
- 법무부 교정위원
- 의정부교도소 종교위원
- 교도소 집회 25년간 1,500회 설교
- 경찰서 유치인 설교 5년간 500회 설교
- 미국 25회, 일본 22회, 브라질, 인도네시아 2회, 중국 2회,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5회,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에 간증 집회와 부흥회 강사로 72회 사역
- 국내 외 많은 교회에서 간증집회와 부흥회로 사역 중



- 4월 10일(수) 오후 7:30 샘커뮤니티교회(담임 샘 신 목사)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 4월 14일(주일) 오전 11:00 주백성 교회 (담임 김성규 목사) 3400 W 6th St Suit 202 LA, CA90020
- 4월 14일(주일) 오후 7:00 웨스턴 교회 (담임 진건호 목사)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 4월 17일(수) 오후 7:00 남가주 은혜선교회(담임 김창곤 목사)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 4월 19일(금) 오후 7:00 We Bridge 교회 연합 집회 더 섬기는 교회(담임 김영일 목사)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 4월 21일(주일) 오전 11:00 가스펠 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1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1
- 4월 21일(주일) 오후 3:00 더 섬기는 교회 (담임 김영일 목사)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 4월 26일(금)~27일(토) 콜롬비아 리오아차 순복음교회 (김주영 선교사)
- 4월 28일(주일) 콜롬비아 보고타 순복음교회 (김주영 선교사)

문의 : 기독교일보(213)434-1170

동부교회협 부활주일 연합예배, “부활과 나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협의회(회장 박선호 목사)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가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에 열렸다. 목도와 기원,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가 대표기도, 홍중수 목사(나성한미교회)의 ‘로마서 5장 8-11절’ 성경봉독에 이어 동부교회 연합성가대의 힘찬 찬양이 이어졌다. 이후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가 ‘부활과 나 그리고 우리’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동부교회협의회 부활주일 새벽예배. ©기독일보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한번 더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개념이다”라고 운을 뚫은 송병주 목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언급하며, “영어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다. 두번째 의미가 문법적으로는 원어에 더 가깝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또한 그 아들이 믿으시는 믿음

으로 내가 사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송 목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면 이런 연약하고 죄악 되고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믿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잘 믿고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까지 오

게 된 것임을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 은혜를 알고 나면 도저히 나의 믿음과 행위를 자랑할 수 없게 된다. 그때부터 한없는 은혜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은 율법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죄 뿐 아니라 죄로 인해 혹은 다른 이들로 인해 받은 상처, 배신감, 아픔, 열등감도

모두 죽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이런 감정들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병주 목사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가슴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함께 못박아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을 게 죽고 살아 날 것이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게 죽고 죽어야 할 게 계속 산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굉장한 상처만 주고 받는다. 미움 대신 사랑이, 죄 대신

구원의 감격이, 열등감 대신 자족하는 마음이, 중독 대신 새로운 열정이, 원망 대신 감사가, 원수된 마음 대신 화목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부활하길 바란다. 미움이 사랑이 되고, 반목이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 아닐까?”라고 권면했다.

예배는 봉헌과 광고, 그리고 축도로 마쳐졌다. 이날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와 지방교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쓰인다.

김민선 기자

은혜한인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부활 신앙의 세가지 의미”

2024년도 부활주일인 3월 31일(주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는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다.

한기홍 목사는 부활 신앙이 세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역사적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2천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두번째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살전 4:16). 세번째는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분명하게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서두를 댔다.

그는 만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전 15:17-19)라며,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순교는 정말 헛된 것이다. 예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불쌍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첫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절망할 게 너무 많다. 절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하신다. 어제 마치고 장례식을 집례했다. 꿈 많고 재능 많은 청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가정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장례예배를 하는데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한다. ‘사랑하는 아들은 천국에 갔다. 아들이 사랑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왔는데 꼭 예수 믿고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간 아들도 그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두번째, 부활신앙은 불신에서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 불의에 대하여 의가 승



31일(주일) 은혜한인교회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는 말씀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불의는 허상이다.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부활했다. 불의가 이길 수 없다. 진리가 승리한다.”

“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남녀가 결합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타락이 시작된다. 부활을 믿을

때 불신에서 확신으로 일어설 수 있다.”

“세번째,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천국에 간다면,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 ‘난 예수가 좋다오’를 꼭 불러달라. 그리고 ‘웃음 있는 나라’를 율동팀이 댄스를 해달라. 어떻게 장례예배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가능하다.”

주디 한 기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벨리채플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1:00
주일 3부 오후 1:30(영어예배)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OC 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363-5887
www.icccla.org



캠퍼스 선교하던 목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공교육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연합교회의 김수미 목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해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월셔와 아이톨로 길에 위치한,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Olive Tree Christian Academy)를 방문했을 때, 학교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을 풍겼다. 교실 안에 책상들이 벽을 둘러 배치되어 있었고, 조용한 연주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학생들은 차분히 앉아 교재를 풀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김수미 교장은 작은 깃발이 꽂혀 있는 책상에 다가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공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었다.

김 목사가 크리스천 스쿨의 비전을 받은 것은 10년도 더 전이다. 그는 분자생물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주님의영광교회를 다니던 중 UCLA와 USC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쳤다. 캠퍼스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위의 염려에도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다.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Olive Tree Christian Academy)의 김수미 교장(왼쪽 끝, LA 연합교회 공동 담임)과 학생들. ©기독교일보

학생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나자 김 목사에게, 청년 목회를 할 때와는 다른 고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다.

당시 공립학교의 영적인 상황은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교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목회를 하기도 힘든데 학교를 한다는 것은 신경 쓸 것이 많은 일하기에, 망설였다. 3~4년이 흘러, 어느 집회에서 들은 신명기 6장 6~9절의 말씀이 그의 망설임에 마침표를 찍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강하게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해도 말씀 가르치는 것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 미국 내 8천 개 학교에서 쓰고 있는 ACE 커리큘럼을 사용하게 되었다. 전 세계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을 쓴다. 미국에서 개발한 지 60년 이상 되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금지됐다. 공교육이 변

질되자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공립교육에 맡기지 말고 직접 교육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이 커리큘럼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는 가정과 교회이다.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에 맡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미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ACE 커리큘럼은 교회가 학교를 할 수 있게 매뉴얼로 만들어 놓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커리큘럼은 남침례교인들이 개발했고 바일 벨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김수미 교장은 이 교재의 장점으로, '작은 교회도 학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즉, 교인 수가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교재를 사용하면 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장은, 부모님이 자녀의 학교를 선정할 때 아카데미만 면만 신경 쓰다가, 영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무엇을 위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위 좋은 학교로 알려진 곳에 게이 선생님 너무 많은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그런 영적 환경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라.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언어가 안되니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비즈니스가 바쁘다 보니 아이들이 방치된다. 아이가 어떤 영적 환경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모른다. 그래서 대개, 다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따라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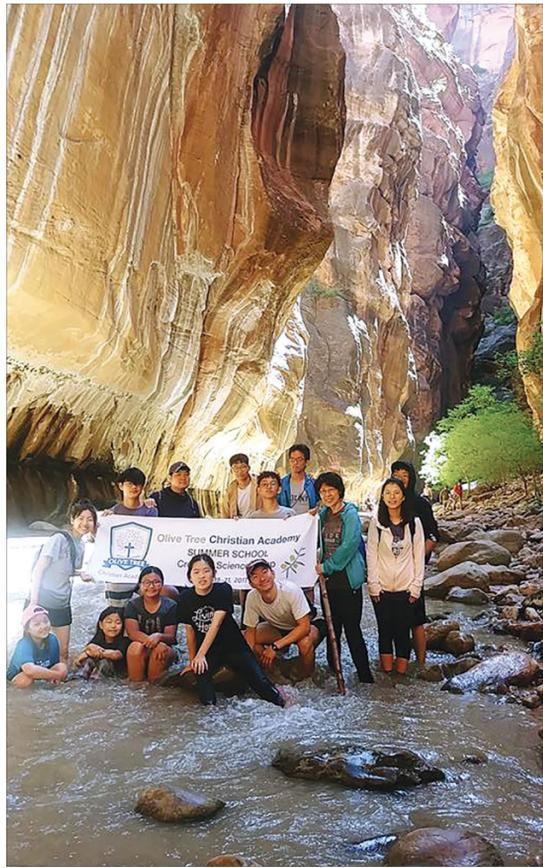
다가 대학 가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 아이비 보냈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먼저는 부모의 문제이고 교회가 말씀을 정확하게 안가 르쳤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엄청난 학문적 조류를 만나면, 자기 신앙을 방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기본적으로 말씀이 약하니 넘어가는 것이다. 교회마다 이 학교를 해야 한다."

김수미 교장은 ACE의 셀프 스터디 방식이 대학교에 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CE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셀프스터디이다. 아무리 좋은 교사가 가르쳐도 그것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20%밖에 소화 못 한다. 자기 학습의 과정을 거쳐야 자기 것이 된다. 이 교재는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 셀프 스터디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대학 가서 더 잘한다. AP 과목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잘 적응한다."

ACE의 커리큘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수학 문제도 성경적인 예문으로 되어 있고 과학 과목은 창조론에 근거해 있다. 영어 과목이 특히 잘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평균적 아이들이 공립 학교 시스템 내에서 문법과 쓰기를 잘 배우지 못하는데 반해, ACE에서는 문법과 쓰기를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가르친다.

이 커리큘럼을 채택하면, 내슈빌에 있는 헤드쿼터에서 일주일간 학생이 되어서 배워야 한다. 거기서 가르쳐주는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6면에서 계속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창조과학 캠프를 다녀왔다. ©Facebook.com/Olive Tree Christian Academy

아버지 밤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교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제 3회 센터메디컬그룹 오픈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024년 4월 25일 (목) 오후 1시 샷건
California Country Club

1509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 | | | | |
|---------------------------------------------------|-------------------------------------------------------|--------------------|-----------------------------------|
| 참가비 \$150 | * 참가비는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참가자 성함으로 100% 전액 기부됩니다. | 상품 | * 상품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참가인원 120명 한정 (점심 도시락&디너 스테이크 식사 제공) | |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 \$10,000 현금 지급 |
|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 | 젠텍보석 다이아몬드걸이 | |
| 참가문의 (714) 904-1701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 | 아시아나 LA-한국 왕복 항공권 | |
| | | 플라리스 피코웨이 레이저 | \$1,200 상당 |
| | | 올림픽골프 골프 상품권, 골프용품 | 포크벨트 천연가족벨트 |
| | | 동원F&B 산삼배양근 | 크리스탈스파 이용권 |
| | | 조삼원 녹용홍삼 | 청운부패 \$50 식사권 |

주최/주관 센터메디컬그룹 후원 GEM TECH ASIANA AIRLINES Polaris OLYMPIC GOLF 포크벨트 Dongwon 동원F&B 조삼원 CRYSTAL SPA 청운

직접 찾아가는 센터메디컬그룹 2024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

유방암 예방은 센터메디컬그룹 과 함께!

오렌지카운티

5월 15일 (수) 9am-4:40pm

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사우스베이

5월 16일 (목) 9am-4:40pm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대상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
하루 최대 40명(전화예약 선착순)

사은품



(해당 상품은 검진받으시는 분들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 사은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714 - 904 - 1701 으로 전화주세요.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4면 기사 <캠퍼스 선교하던..>에 이어서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 바꾸고 다른 것을 시도해 보려 하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꾸준히 믿고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교재를 만든 분들이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만든 자료이며, 학문적으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ACE를 사용하면 교사들이 커리큘럼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들 업무의 가장 큰 부분이 교재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 교재를 사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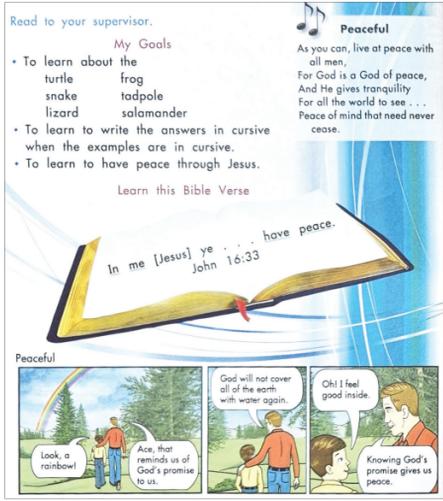
그는 교회 학교를 시작할 때 “목사가 교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님들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면 학교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엉겁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장이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학교를 인가 받는 것도 간단하다. 교회 학교도 열마든지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1년에 한번씩 헤드쿼터가 학교를 평가해서 등급을 정해주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자체적인 디플로마를 발행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디플로마를 주고, 그것으로 대학교 지원

를 나눴다. 책 내용은 한 아이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그 상황을 말씀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내용이었다. 북클럽을 위한 질문 중에 ‘왜 하나님은 이런 아이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라는 질문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잘 인도해주셨다’고 대답했다. 저는 그때 눈물이 났다. 어른들도 그런 대답 못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다. 그런 아



ACE는 일년에 한 번 리저널스튜던트 컨벤션(Regional Student Convention)을 개최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북돋운다. ©Olive Tree Christian Academy



ACE는 교재의 내용을 성경과 관련해 가르친다. ©ACE School of Tomorrow

내용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신경 쓸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집중하지 못하면 대부분 부모님 문제이다. 집의 영적인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면 아이가 학교 와서 공부하기 힘들다. 부모의 신앙 생활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매일 아침 예배와 찬양으로 시작

성경적 세계관 교육 통해 신앙적 해석 능력 배양

이 가능하다.”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일과는 아침예배와 찬양으로 시작된다. 매일 성경을 접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킨더 때부터 다닌 중학생 아이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있었고, 말안 듣고 힘들었던 아이이다. 똑같은 말을 10번을 해도 안 들었다. 아이가 3~4학년 정도되었을 때, 세계 크리스마스 카드에 ‘순종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서 줬다. 또, 한번은 북클럽을 하는데 1800년대 팬데믹을 배경으로 한 책을 읽고 대화

이들이 대학에 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이비 대학에

목매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 “현재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학생 수는 15명 정도이다. 지금 시설에서 최대 수용 가능한 수는 20명 이내이며, 가장 높은 학년은 8학년이다.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중간에도 들어올 경우 인터뷰를 통해 아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 그리고 최소한 1년 정도 훈련을 하게 된다. ACE는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가속도가 붙는다.”

“PE 수업은 교회 펠로우십을 하는 공간에서 하고 있다. 넓은 운동장이 없다보니 대신 필드 트림을 자주 데려 간다. 학생수가 많지 않으니 필드 트림을 가기 용이하다. 예제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재능 기부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

다. 교회가 크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년 동안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학생과 교사 모집을 꼽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학생과 교사 모집이다. 선생님들이 발런티어로 참여하고, 부모님, 전도사님들도 파트타임으로 돕고 계신다. 학비는 학교를 시작할 때 저렴하게 책정했고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학비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애프터 스쿨 보다 저렴하다. 교사 모집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김수미 교장은 ‘자녀 학교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저희는 지금까지 광고도 안했다. 시설이 제한되어 있어서 공지를 안했는데 올해는 알리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키워 주실 것이라 믿음이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려 한다.”

또한 ACE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씩 리저널 스튜던트 컨벤션, 인터내셔널 컨벤션을 개최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하나의 공동체의 소속감을 주며, 발표 등의 기회를 마련해 자신감을 북돋운다.

이 학교의 교장이자 LA연합교회에서 공동목회를 하고 있는 김수미목사는 풀러 신학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칼텍(Cal Tech) 박사 후 과정 연구원과 로즈웰 암 연구소(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박사 후 과정, 뉴욕 주립대학교(SUNY at Buffalo) 박사(Ph.D. 분자생물학),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B.S., M.S. 미생물학)과정을 마쳤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회심하고, 유학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오다가,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교육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디 한 기자 주소: 3470 Wilshire Blvd, #300, LA, 문의: soomikim65@hanmail.net 626. 376. 3955

→1면 기사 <리처드 도킨스..>에 이어서

진화론자이자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그는 “난 스스로를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난 신자는 아니지만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문화적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난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좋아하고 기독교 정신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영국에서 기독교를 실천하는 사람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 “행복하다”면서도 기독교가 쇠퇴하며 유럽에서 이슬람교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부활절 기간 동안 런던의 옥스포드 거리를 장식한 라마단 조명에 대해 “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난 언제나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며 “내 생각에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관용은 종교인 것 같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도킨스 박사는 특히 여성과 동성애자 대우와 관련해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영국의 가치와 양립하기 어렵다며 “이슬람의 교리인 하디스와 꾸란은 근본적으로 여성과 동성애자에게 적대적이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 신앙의 단 한마디도 믿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살고 싶다”고 했다.

손슨이 이슬람이 영국 제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측에 대해 묻자, 그는 “내 생각엔 끔찍한 일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기독교를 이슬람에 대한 보루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난 그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두 종교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팀 기독교인’(Team Christian)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킨스는 동성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그러한 초자연적 주장이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의 무신론적 신념을 강조했다.

2022년 5개 기독교 단체가 영국 성인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만이 ‘실천적인 기독교인’으로, 42%는 ‘비실천적인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2022년 영국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내 기독교인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1801년 영국 최초의 인구 조사 이후 기독교인으로 확인되는 인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6,700만 명이

→1면 기사 <168년 된..>에 이어서 2010년에는 대학이 “연방 학생 재정 지원 예산에서 연간 4,900만 달러의 예산에서 약 500만 달러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UMC 산하 교육기관으로서 1856년에 설립된 BSC는 사립 인문대학으로, 34개 주와 9개국에서 온 1,2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돼 있었다. 최근 미국 내 소규모 사립 기독교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월 오하이오주 사우스 유클리드에 위치한 노트르담대

학(Notre Dame College)은 운영 기금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채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달 초 미국성공회(PECUSA) 산하 대학인 세인트어거스틴대학교(Saint Augustine’s University)도 재정 및 인종 문제로 인해 4월 1일부터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여름에는 기독교선교연맹 산하 기관인 뉴욕의 얼라이언스대학교(Alliance University, 구 나약칼리지)가 재정난으로 대학 인가를 상실한 뒤 폐교됐다. 김유진 기자

상의 국가 인구 중 46.2%(2,750만 명)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인구

조사에서는 인구의 59.3%(3,330만 명)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TS 준회원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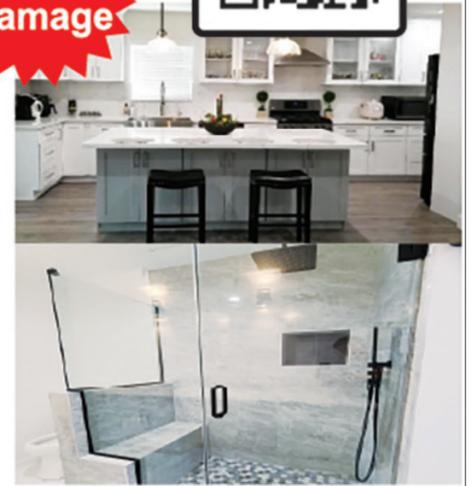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L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김철민 장로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3부 예배 오전 11:45
4부 예배 오후 1:30
금요 예배 오후 8:00
새벽 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EM예배 오전9:00
금요예배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thejoylife.org



이희문 담임목사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음) e-mail: cometoj@gmail.com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상식 담임목사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온라인 수요저녁예배 (수) 오후 8시
새벽예배 월 - 온라인 Only
화 ~ 토 - 현장 영상예배 (오전 6시 20분)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
T. (213)386-2233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안병권 담임목사

1201 W. 255st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갈보리선교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0: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심상은 담임목사

8700 Staton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722-4805

구세군나성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Youth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김성수 담임목사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T. (213)480-0714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이황영 담임목사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 CA90710
T:(310)326-0300

남가주주안예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대흥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11:00
유치/유초등부예배 오전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방주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주일학교 정오 12:00
수요예배 7:00



김명규 담임목사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새 한우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1818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8:30am, 2부 10:30am
아침 경건회 6:00am(화~금)
소망성경학교 7:30pm(수)
주일 학교 10:30am(주일)
중 고 등 부 10:30am(주일)
소망열린학 10:00am(금)
한글 학교 9:30am~11:50pm(토)

www.somangusa.com



성요셉 담임목사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씨미밸리침례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예배 오전 11:15
주일EM예배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45



반채근 담임목사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아버지 밭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담임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남재헌 담임목사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은혜로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은혜와평강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님세운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6: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박성규 담임목사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325-4020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준준 담임목사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영어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승혁 담임목사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748-6878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무법천지' 아이티에서 미국 선교사 다수 구출돼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주민들이 도망치고 있다. ©TODAY 보도화면 캡처

지난 2월 말 갱단들이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를 장악한 후, 발이 묶인 미국 선교사들과 시민들이 몇 주 만에 구출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남편 라이언과 함께 아이티에서 선교사로 일해온 러브어네이버 미니스트리(Love A Neighbor ministry) 사역자 질 돌란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자신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하나임을 밝혔다.

돌란은 "23일 밤, 우리는 실제로 (구출이) 이뤄질 거라는 전화를 받았다. 남편과 나는 어느 때보다 더 희망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돌란은 24일 밤 9시경에 플로리다에 도착했지만, 입양 과정 중이었던 몇 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아이티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녀는 "아이티의 위기는 갱단이 존재하는 곳을 훨씬 넘어섰다. 전국에 화물 및 기름의 자유로운 이동은 큰 타격을 입었다. 물가 폭등, 사업 폐쇄, 은행 중단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티에서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고 했다.

돌란은 "24일 동안 포르토프랭스에 갇혀 있던 우리 가족 5명은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입양 과정 중이었던 세 명의 아이들과 고아원에서 우리가 돌봐온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라며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후원을 호소했다. 지난 달, 기독교 인도주의 사역인 '미션 오브 그레이스'(Mission of Grace)와 함께 아이티로 여행한 9명의 선교사 중 1명인 나탈리 크로스도 최근에 구조되었다. 크로스도 선교사는 WFTV 9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0명의 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으로 이동시키는

임무를 돕기 위해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티에서의 선교 활동으로 예정된 2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가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FTV 9 보도에 따르면, 갱단 폭동 이후 약 500명의 플로리다 주민이 아이티에 갇혔으며, 현재까지 약 185명이 구조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보고서는 "최근의 폭력 증가로 인해 살인, 납치, 강간 등 인권 침해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아이티 및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해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위기로 인해 의료 시스템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가 거의 붕괴되었다. 수도권에 100명 이상의 결핵 환자를 수용하던 아이티 국립대학병원 및 요양원을 포함한 총 18개 의료기관이 폐쇄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병원들은 불에 탔으며, 의료 인력은 살해 또는 부상을 입거나 납치되고 있으며 기본 의료 용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OHCHR은 보고서에서 "3월 8일부터 14일까지 포르토프랭스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인해 약 1만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한되었다"며 "특히 아이들에 대한 폭력 상황은 우려스럽다. 아이들은 갱단의 공격으로 죽거나 총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갱단이 무장 공격을 수행하는 데 아이들을 이용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인터폴 "동남아 인신매매 기반 범죄단 연수익 3조달러"



인신매매 피해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한국오픈도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동남아시아에서 극성을 부리는 인신매매 범죄를 바탕으로 한 갱단들의 연간 범죄 수익 규모가 3조 달러(약 404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28일 (현지시간) 일부 국제 범죄단체의 연간 수입이 500억 달러(약 67조원)에 이르며, 매년 2조~3조 달러의 불법자금이 국제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스톡 사무총장은 조직범죄 수익의 40%가 마약 관련 수익이며 인신매매, 무기·장물거래 등도 주요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로 새로운 범죄 모델이 확산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범죄 단체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시작된 사이버 사기 범죄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2021년 이후 34개국에서 3500건 이상의 체포 사례가 있었고, 3억 달러가 넘는 불법자금이 압수됐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10만 명 이상이 범죄 기업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800명 이상이 온라인 사기 센터에서 구출되기도 했다.

이나래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차세대) 오전 9:15 새벽예배(물론인 Only)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화-토)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오전 7:30 분당 OMC 중보기도회 오전 11:30(과목 4종)
주일학교 오전 9:30 분당 OMC 소년부 오전 11:30(과목 4종)
주일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학교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과목 4종)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MB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리더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광명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고광성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현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창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몰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본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성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막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트럼프의 성경 지지 발언, 기독교계 반응 엇갈려



2024년 3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영상에서 가족 성경을 선보였다. ©Truth Social 캡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주간 동안 '하나님이 미국에 축복을'(God Bless the USA)이라는 이름의 성경을 지지한 데 대해 기독교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곡 'God Bless the USA'를 부른 가수 리 그린우드(Lee Greenwood)와 함께 이 성경을 홍보했다.

이 성경책은 59.99달러에 구매할 수 있으며, 킵 제임스 버전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헌법, 권리장전, 독립 선언서, 충성의 맹세 및 그린우드가 친필로 쓴 곡의 후렴구가 포함되어 있다. 전 대통령의 성경 홍보는 진보적 기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지만, 사회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저명한 보수단체인 '가족연구협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누군가를 성경을 읽도록 권장한다면 성경 홍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윤리 및 공공신학 교수인 앤드루 T. 위커는 월드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건국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는 것은 시민 종교의 혼합주의적 표현으로, 이는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더 중요하게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용해야 할 수준보다 더 멀리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성경은 결코 만들어지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내가 성경 또는 헌법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둘 다를 매우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결국 종교 시민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둘을 결합하는 것은 보수정치를 위한 정체성 정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NN과 인터뷰한 다수의 진보적 기독교 목회자, 활동가, 신학자들은 트럼프의 성경 홍보가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미시시피주 재선에 위치한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제마르 티스비는 "성경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오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성경이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독립 선언서, 미국 헌법, 심지어 리 그린우드의 노랫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을 성경에 추가하고, 성경에 특정 정치적 문서를 수록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오랜 진보 인권 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트럼프를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며, 이번 성경 홍보가 사실상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그는 MSNBC의 '모닝 조'(Morning Joe)에 출연해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적 기독교 라디오와 뉴스매스 사회자인 토드 스타네스는 트럼프의 성경 지지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진영을 '우오크복음주의자들(wokevangelsicals)'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미국 헌법과 독립 선언서에 익숙해질 것을 촉구했다"면서 "무신앙인들과 우오크복음주의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가엾고 슬프다"고 썼다. 보수 기독교인이자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의 정치학 및 법학 교수였던 캐럴 M. 스웨인도 스타네스의 논평에 동의했다.

스웨인은 엑스에 "트럼프가 리 그린우드의 미국 성경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왜 그토록 분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건국 문서를 읽는다면 미국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를 한 권으로 묶어두면 우리 국가와 그 토대에 대해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페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성경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으며, "도널드 J. 트럼프, 트럼프 조직, CIC 벤처스 LLC 또는 해당 주체나 계열사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수 그린우드도 지난달 29일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시'와의 인터뷰에서 일련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린우드는 "나는 이 성경을 출판하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었고, 그(트럼프)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는 어떤 성경이라도 들고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린우드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은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그가 실제로 전 세계와 미국, 모든 시민에게 '나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으며, 이 나라가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한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 진영이라고 해서 그들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들은 단지 성경 홍보를 통해 신앙을 전파한 것에 대해 나와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부활절, '트랜스젠더의 날'과 겹쳐 미국서 보수-진보 충돌

지난 31일 부활절을 맞아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충돌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 명절이지만, 날짜가 유동적이다. 반면 '트랜스젠더의 날'은 매년 3월 31일로 고정돼 있어 올해 부활절과 겹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날 선포문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삶과 목소리를 높이고, 차별을 없애자"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은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종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캐롤린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부활절 날 트랜스젠더의 날을 선포한 것은 모욕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바이든의 백악관이 부활절의 교리를 배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나래 기자

美 기독교 지도자 140여 명, 가자지구 내 '영구적 휴전' 촉구

미국에서 약 14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자지구 내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중동 평화를 위한 교회들'(Churches for Middle East Peace, 이하 CMEP)은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고통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며, 우리는 고통받는 성지의 모든 사람들과 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동 평화를 위한 교회들'은 30개 이상 국가의 정교회, 가톨릭교회, 개신교회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회원들은 루터교·메노나이트·퀘이커·복음주의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해당 서한에는 과테말라의 로마가톨릭 알바로 라마지니(Alvaro Ramazzini) 추기경,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 엘리자베스 이튼(Elizabeth A. Eaton) 주교, 성공회 마이클 커리(Michael B. Curry) 주교, 연합그리스도교회 카렌 조지아 톰슨(Karen Georgia Thompson) 회장, 진보적인 복음주의 운동가 셰인 크레이본(Shane Claiborne)과 짐 윌리스(Jim Wallis), 잡지 소저너스의 애덤 테일러(Adam Taylor) 회장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난주간에 가톨릭교인, 개신교인, 정교회교인 모두 기도와 성찰, 회개에 동참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의 슬픔과 고뇌, 고통 속에서 신실한 증인이 되지 못한 점을 회개한다"고 했다.

이 서한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소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은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테러단체 하마스를 제거하고 인질 석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만 3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은 것으로, 유엔이 독립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로이드 오

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게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수가 너무 많고, 가자지구에 들어오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고 했다.

이에 대해 BBC는 "이스라엘은 유엔 전문가의 '대량 학살' 비난에 반발하며, 협약의 터무니없는 왜곡이자 현실의 음란한 반전이라고 묘사했다"고 전했다.

CMEP 서한의 서명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2세 미만 어린이 중 15% 이상이 영양실조와 돌이킬 수 없는 허약함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 및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에 연루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바이든에게 직접 보낸 별도의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폭력에 대한 미국의 공모를 종식시킬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잠재적인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힘이 닿는 모든 일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는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지난 몇 달 동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해 애도하며 기도한다"며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이들 가운데 계셨으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 또 가장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소망을 붙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서한을 발송하기 하루 전 미국은 남 라마단 기간에 가자지구 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50명이 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기독교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난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에게 즉각적인 휴전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군사적 노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미경 기자

美 교회에 사람들 가장 많이 오는 날은 '부활절'



©Adrianna Geo/ Unsplash.com

미국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많이 모이는 때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4명과 교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목회자들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일' 1위로 '부활절'(52%)을 꼽았다. '크리스마스'(28%)와 '어머니날'(6%, 5월 둘째 주일)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6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13년 전인 2011년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은 "절기예배에서 '친구초청예배' 등 전도예배로 비중이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2011년 동일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23년의 절기예배 참석 비율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활절'은 93%(목회자들이 꼽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일' 1·2·3순위 합계)에서 90%로 3%p, '크리스마스'는 84%에서 81%로 3%p, '어머니의 날'은 59%

서 51%로 8%p 하락했다.

반면 이 수치가 크게 늘어난 날은 2011년 14%에서 2023년 20%로 6%p 증가한 '친구초청의 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이프웨이리서치는 평소 출석인원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절기를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활절'을 1순위로 꼽은 교회의 출석교인 수는 '250명 이상(67%)' '100~249명 사이(60%)' '50~99명 사이(51%)' '0~49명 사이(44%)' 순이었다.

라이프웨이리서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전무이사는 "절기예배에 많은 수의 방문자를 확보하는 교회는 대체로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큰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친구초청예배 등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초대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가-토)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2부 09:15AM -2부 11:00AM -3부 11:00AM -광일(월-금) 06:00AM -토요일 06:00AM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주일에 오전 11:00 화요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한인필그림교회

2518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김상현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가-토)오전11:00 영아부예배(만유체)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오전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8:00 AM 주일 2부 9:30 AM 주일 3부 11:15 AM 수요기도회 7:30 PM

영아·유아 유치부 11:15 AM 중고등부 9:30 AM/11:15 AM 새벽기도회 월-토 5:30 AM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월)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월요일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월)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314 Riata St., Northridge, CA 91320, (818)863-5887

OC예배 주일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주일 EM예배 새벽기도회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12:30 오후 12:30 오전 6:00(화-토)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교목부예배 주일 수요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저녁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유초등부 주일 중고등부 주일

오전 9:45 오전 11:30 오전 11:30 주일 오후 7:30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오전 8:15 (한국어)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오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교목부예배 수요일침례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00 오전 7: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EM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00 오후 7: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낮예배 주일저녁전야예배 금요일교회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오후 7:00 오후 8:00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이병걸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박은호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goun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습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말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법을 체험해 보십시오.
한의원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떡갈비, 김밥,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같은,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뛰어난 효과를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이웃나라 멕시코에 지속적인 사랑과 도움의 손길 건네 주어야”

엔세나다, 티후아나 외곽 지역서 선교 펼치는 안기관 선교사 인터뷰



안기관 선교사. ©기독교일보

가톨릭 인구가 많은 멕시코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를 전하기에 힘쓰는 선교사들. 안기관 선교사는 멕시코의 티후아나, 엔세나다의 외곽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곳들은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서 복음과 여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지난 2007년도에 멕시코에 들어가 계속 선교를 펼치고 있는 그는 교회 건축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평신도 리더 양육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 엘에이에서 3-4시간이면 도착하는 티후아나와 엔세나다 지역에 단기선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선교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것이라 단언한다. 다음은 안 선교사와의 일문일답.

-멕시코 선교 어떻게 가게 되었나?
한국에 있을 때 남쪽으로 부름을 받았다. 처음에는 파라과이에 가려 했는데 멕시코로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다. 멕시코를 답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멕시코로 오게 되었다. 2007년도에 멕시코에 들어갔다.

-어떤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이다. 예배, 찬양, 성경공부, 청소년 양육 등 모든 사역을 스페니시로 하고 있다. 제가 현직인 목회자로 있으며, 3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첫째 셋째 주는 티후아나에서, 둘째 넷째 주는 엔세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평신도를 기르는 사역이다. 제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교사나 리더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풀타임 현직인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역 목회자를 설교자로 세우기도 한다. 티후아나에 3명의 집사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 행정을 해나간다.

교회들이 교인들을 모시고 와서 단기선교를 펼칠 수 있다. 의료 미용, 노방 선교, 치과, 주일학교 VBS 등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수련회를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선교지 10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어서 쉬을 수 있다. 멕시코 선교는 앞으로 일꾼을 세워서 남쪽으로 계속 보내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한다. 남쪽의 오후카 지역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엔세나다의 감뽀 지역의 농장 지역이 거주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 지역에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고, 기쁨의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다.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회 건축에도 직접 참여한다고 들었다.
제가 100%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비를 많이 절약하고 있다. 직접 건축에 참여하니,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하고 조율을 잘해서 적은 인건비가 든다.

-보람이 있었던 일들을 나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교인으로 성장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다. 이번에 티후아나 교회가 15주년이 되었는데, 신실한 3가정이 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귀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 그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신앙적으로 자라

나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은혜를 받는다. 교회사역은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 사역을 해야 한다. 엔세나다에 침술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2주에 한 번 한의원을 열고 있다. 2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교회사역은 포괄적인 사역이다.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다. 단기선교사들이 왔을 때 건축비를 좀 받아서 어려운 가정의 집도 지어주고 있다. 티후아나의 농촌 지역이라서 가정집 화장실이 재래식이다.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사역도 하고 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일 큰 어려움은 동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으면 나눠서 하면 좋는데 동역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평신도 사역자로 키워보자는 것이다. 전문 사역자들을 불러서 사역하게 하면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다. 한국과 미국 여러 곳에서 심사일반으로 선교를 도와주고 있어 감사하다. 교회에 필요한 사역 비용은 교회 헌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교할 수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선교지에 할 일이 많다.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는 자원자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교의 꿈을 가진 자들을 선교지에 파송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선교사들이 단기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교가 선교지에서 이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한달에 한번 꼴로 내려와서 미용사역이라든지, 영어나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 이상적이다. 1년에 한두번에 아닌 지속적으로 오면 선교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교회는 선교지에 와서 도움을 주고 총선할수 있는 시간이 되고, 선교지는 와서 선교해주니 도움이 된다. **토마스 맹 기자 문의: 52-664-229-6229 (안기관 선교사) 선교후원: 200-016-416 한미은행 ahn kee kuan.**

VBS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라카나다 아름다운교회서 4월 20일(토) 오전 9시

VBS & SUNDAY SCHOOL TEACHERS' SEMINAR

Date: Saturday, April 20, 2024
Time: 9:00am - 12:00pm
Location: La Cañada Arumdaun Church
104 Berkshire Pl. La Cañada Flintridge 91011

The last minute is the best minute to start prep for your best summer of kids ministry ever! Come learn from ministry experts on topics like...

1. VBS 여름성경학교

- How to VB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Jumpstart VBS Planning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VBS의 A to Z)
- VBS Crafts & Snacks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VBS Craft & Snacks)
- Tips to Level Up Your VBS Teaching (즐겁게 배우며 믿음이 자라나는 VBS 공과지도)

2. Sunday School 주일학교

- Rediscover Your Why: Stay Motivated Through Reflection & Spiritual Self-Care (다음세대를 이끄는 교사의 영적 무장과 자기관리)
- 5 Small Group Hacks to Change How You Teach and How Kids Learn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을 위한 5가지 Tips)
- Is It Sunday yet? How to Get Kids Excited for Church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Scan QR Code To Register \$50/person

Questions? Text Okhee Lee at (213) 273-5534 or David Yeo at (213) 500-7890

라카나다에 있는 아름다운교회(이현동 목사, La Cañada Arumdaun Church, 104 Berkshire Pl. La Cañada Flintridge 91011)에서 오는 4월 20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VBS 및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CEF KOC, 대표 여병현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VBS를 준비하는 방법(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Jumpstart VBS Planning), ▶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VBS 공예 및 간식(VBS Craft & Snacks), ▶ VBS 교육 레벨업(Tips for Level Up Your VBS Teaching), ▶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교사들의 영적 무장과 자기 관리(Stay Motivated Through Refelction & Spiritual Self-Care), ▶ 어린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을 위한 5가지 팁(5 Small Group Hacks to Change How You Teach And How Kids Learn), ▶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 학교 운영의 실제(How to Get Kids Excited For Church)를 다루게 된다. 강의는 영어로 진되며, VBS교재가 무료로 제공된다. 등록비는 \$50. 문의: Okhee Lee (213-273-5534), 여병현 목사 (213-500-7890), cefkorean@gmail.com

강준민 칼럼

부활 속에 담긴 승리의 비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속에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유전자(DNA)가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승리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승리의 비밀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히 11:3).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17).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은 살아 있는 생명력입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역사합니다. 말이 과장을 일으킵니다. 말이 결과를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창조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승리의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사랑 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요일 4:18). 사랑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배웁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 받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셋째, 승리의 비밀은 고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 부활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승리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 12:23).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액체는 세 가지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눅 22:44). 피는 생명입니다(레 17:11).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하는 보배로운 피입니다(벧전 1:19). 예수님의 승리는 고난을 통과한 승리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후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

리하십시오.

넷째, 승리의 비밀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히 11:1). 믿음은 거룩한 기대입니다. 믿음은 성스러운 상상력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하).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엡 2:8-9; 롬 1:16-17).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 1:12).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롬 3:26, 30). 믿음의 선포로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막 11:23).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막 11:24). 믿음으로 오래 참는 중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히 6:14-15).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합니다(롬 10:17). 믿음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요 15:7).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성장합니다(약 2:26; 마 7:24).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죽음과 열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지난 주일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사도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대대히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열매가 약속되어 있기에 외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 역시 죽음 너머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죽음과 같은 현실이 우리를 덮고 있어도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미래를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형당할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열매를 향한 계획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 두 모순된 개념이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이 두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삽니다.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견디고, 참아내면

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부활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영국 한인 목회자들의 초청으로 같이 목회의 시름을 나누며 격려하기 위해 갑니다.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한 분이 제가 강사로 오는 것을 알고 이멜을 주셨습니다. 웨일즈 하노버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엔 하노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26살에 조선에와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참수당한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하노버 교회 담임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그 강단에서 아들을 목사/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했

는데,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 얼마나 망연자실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성경책은 어느 여관집 벽에 도배되었고, 도배된 성경을 읽고 여관 주인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성경책을 가져다 준 12살 소년 최치량이 예수 믿게 되고, 훗날 마펫 선교사가 이 여관에 머물며, 이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여관을 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교회는 후에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 장대현교회가 되었습니다. 최치량은 나중에 장대현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열매로 한국교회가 일어났고,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후 158년을 돌아, 한인 목회자가 하노버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부활과 함께 한국의 바친 생명을 열매로 거두고 있습니다.

WPC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 공고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 총노회에서 전도사,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가 아래와 같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 고시 일자: 2024년 7월 6일 (토) AM 10시
- 고시 장소: 조이풀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86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 전도사 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8장 제55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인정(인준)하는 신학생으로 응시 자격을 갖춘 자
-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8장 제55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총회가 인정(인준)하는 신학교 (M. Div)를 졸업한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 목사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13장 제1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2024년 4월 19일 (금) 오후 5시까지
- 전도사 고시 과목: 성경, 12신조, 소요리문답, 교회 헌법 (예배 모범, 정치), 면접.
- 강도사 고시 과목: ① 제출 과목: 논문과 주제 및 설교. ② 시험 과목: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면접.
- 목사 고시 과목: 12신조, 교회 헌법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정치), 면접

* 문의: 고시 부장 김성권 목사 (213-503-9943) 고시부서기 정앤드류 목사 (206-992-6253) * 타 교단도 고시 문의 요망.

※ 자세한 사항은 페트라대학교 (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petrauniversity.org>

세계예수교장로회 (World Presbyterian Church General Assembly) LA 중앙 총노회 고시부 (LA Central Synod Qualification Exam Office) 총노회장: 김정호 목사 (직인생략) 고시부장: 김성권 목사 (직인생략) 고시부서기: 정 앤드류 목사 (직인생략)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0
3부 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청년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충현선교교회
YouTube

He is Risen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날 모두 한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축하합시다!



충현선교교회
CHOONG HYUN MISSION CHURCH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문의: 818-549-919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www.choonghyun.org

www.ChurchEveryday.org

예수 부활하셨네!



에브리데이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info@ChurchEveryday.org

Worship Hours

Sunday 주일예배
1부 - 8:00AM (성인)
2부 - 9:30AM (성인/교육부)
3부 - 11:15AM (성인/청년/교육부/항기마을)

주일영어예배
EM 성인 - 9:30AM
영어청년부 - 11:15AM



안정섭 목사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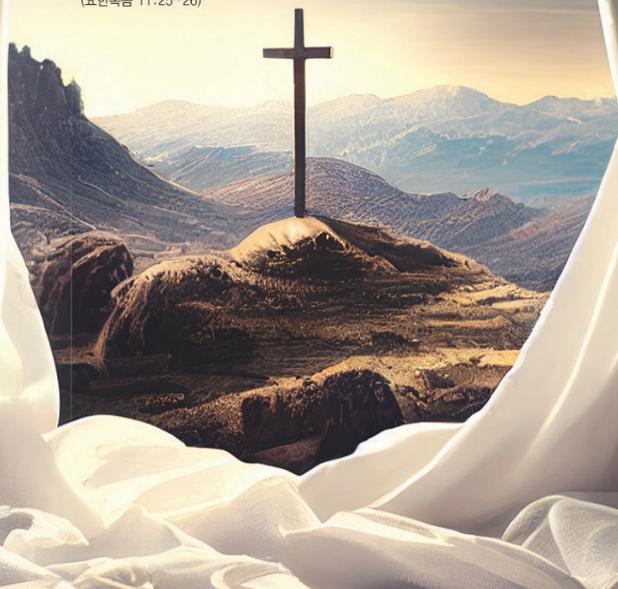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10408 Balboa Blvd, Granda Hills, CA 91344
T. (818)366-0089 / www.vkumc.com

예수동행교회
Journey with Christ Church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진유철 칼럼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최근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마귀의 성공 두 가지를 꼽으라면, 1850년 대 세상을 미혹한 '진화론과 공산주의' 입니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는 '진화론'은 모든 것이 하등한 단계에서 고등한 단계로 진화를 거쳐 발전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므로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회복이 정답입니다. 신앙도 저절로 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안일해져가려는 죄성의 본능을 이기고 첫 사랑을 회복해야 성장하게 됩니다. 또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마음을 계속 지켜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기에 반복이 실력이라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일 안 해도 다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무서운 미혹인데, 놀랍게도 인류의 반 이상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Capitalism)에 반대되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Socialism)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 없이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성의 인간이 어떻게 똑같

이 평등을 이룰 수 있겠으며, 자기를 개발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가까운 북한의 가난을 비롯하여 소련과 동구권의 낙후됨과 남미 국가들의 몰락과 같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소수의 공산당원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하향평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만들 유토피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 구원의 모든 일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고전15장3-6)

성경대로 이루신 부활이 믿어지면 재림하실 주님과 성경대로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영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믿어집니다. 성경대로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원수마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고난의 끝은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부활을 믿으면 누리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와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렘!

기쁨으로 읽는 : 마태복음, 제24 장 (12)

팔복: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김 영 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셋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유순한 기질이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내 생애 동안이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도 그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장대하고도 장구한 믿음이다.

온유한 사람은 불의와 악을 향해 싸우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온유한 사람은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기다린다. 읊은 왜 그가 고난당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절대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

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요 23:8-10).

누가 이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모세도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때에,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걱정 마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처리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유하게 된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에게 전이(轉移)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게 될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11:28-30).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축복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

"온유한 자는 '나 때문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피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움으로 갚아 주었는데도, 그에게 땅이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다. 기업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 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넷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

게 된다. 의는 '디카이오수네'로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옮겨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고 싶어 한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고 싶다.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며,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좋은 이웃도 되고 싶다.

그런데 내 속에 그럴 만한 선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바울도 탄식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롬 7:18).

그때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나 때문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자. 거기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영광을 받고 계신지, 유심히 살펴보자.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불의한 언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왜 저 사람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만 골라 가며 할까' 하고 탄식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보

고 계시는 것만 같아 요나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동정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질이 다르다. 동정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긍휼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그에 상응한 벌 대신에 오히려 용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착한 마음'이다.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자주 자주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시 25:6-7).

긍휼의 성품을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가정은 천국이 되고 사회는 더욱 아름답게 될 것이다. 긍휼의 성품을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거든 먼저 예수님을 찾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목적과 의미 충만한 시간 사신 예수님 원칙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영원 준비할 기회



솔직히 시간 관리에 관한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케빈 드영의 <미친 듯이 바쁘>(부흥과개혁사, 2013)이다. 생산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삶을 오히려 규모 없게, 목적을 상실한 채 살지 않도록 경고하고, 단순한 목표를 세우고 충성스럽게 살라고(왜 바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항상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좋은 책이었다.

2019년에는 팀 켈리스가 쓴 《Do More Better: A Practical Guide to Productivity》를 번역해 청년들과 함께 읽고 실천해 보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유익하면서도 실제적인 원칙과 방법이 이 책에 많이 나온다(그래서 짧은 소개자인 이 책이 정식 출간되었으면 좋겠다). 사업가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관리하며 살기 위해 애쓰는(또 이것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강연하는) 저자 조던 레이너는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라는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시간 관리의 원칙을 제시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항상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셨다. 원 제목은 'Redeeming Your Time'으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속하라(구원하라)는 의미다. 저자는 시간 관리와 생산성 관련 책을 40권 넘게 읽었다고 말한다(21쪽). 그러면서 자신이 쓴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가 ①시간의 창조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는지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②시간 관리 관련 서적이 말하는 여러

원칙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통일성 있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③신학과 실천, 이론과 전술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애쓴다는 측면에서 신선한 책으로 독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저자가 선정한 '삶을 목적 지향적, 현실적, 매우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7가지 성경적 원칙(이 책의 부제)'는 다음과 같다: ①말씀으로 시작한다 ②하기로 한 일을 한다 ③소음의 왕국에서 벗어나 ④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⑤한번에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⑥생산적인 습을 누린다 ⑦모든 서두름을 제거한다. 저자 레이너는 목표한 바대로 7가지 성경적 원칙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내세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상을 보내셨는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부합하도록 사셨는지 설명한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셨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셨다(복음 전파). 많은 일에 둘러싸일 때 한적한 곳으로 피하기도 하셨고, 산적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항상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종종 제자들과 습을 누리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분이셨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시간을 구속할 수 있을까? 저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각각 성경적 원칙 아래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 과제가 나온다. 가령 시간에 관한 예산을 작성하는 것(계획을 세우는 것)을 설명하면서, 일정을 조정하



©픽사베이

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고, 하루 몰입할 수 있는 최대 4시간을 각각 어떻게 배치하는 동시에, 생산적인 습을 중간에 어떻게 끼워 넣는지 저자가 실제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독자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특별히 생산적 삶을 위해 조직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무척 유익한 팁이 많이 나온다.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독자들은 저자가 추천하는 몇 가지 실질적 팁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는 SNS 등도 저자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통제하면, 많은 시간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시간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기회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활동으로 시간을 소비한다. 너무 자주 기회를 흘려 보내고, 심지어 주어진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 마음

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조던 레이너는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다시 한번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준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주인공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시간만 사용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사용한 시간만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시간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성향의 사람이든 자유롭게 사용하는 성향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레이너의 유익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짧은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영원을 준비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조던 레이너의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를 읽는 모든 독자가 저자의 바람대로 예수님처럼 시간을 사용하여 목적과 의미가 충만한 시간을 살기를 간구한다.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

조던 레이너 | 정성목 역 | 두란노 | 324쪽 | 20,000원

현직 기업인이 소개하는 성경을 토대로 한 시간 관리법,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 목적으로 충만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더없이 생산적인 삶을 위한 7가지 성경적 원칙과 현대인 맞춤 적용 방안을 담았다.

조던 레이너는 각 장마다 예수님의 삶에서 길어 낸 7가지 강력한 시간 관리대원칙을 제시하고, 해당 원칙마다 현시대를 사는 이들의 일상에 즉시 적용할 만한 실습 활동들을 덧붙였다.

4월, 작가들의 말말말

■ 강영희 -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살게 하소서 365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자연을 바라보고 문화, 문명의 자취를 더듬고 음악을 들으면서 예술 세계에 빠진다.

그리고 국내 여행을 다니다가 양이 안 차면 해외여행을 다닌다. 그런 이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

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마 11:7) 그렇다. 사람은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높고 좋은 옷을 입은 이를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겨워한다. 그러나 그들과 먹고 마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허전하다면 참된 만남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사람이 주님을 믿으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 자녀가 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

님 안에 사는 삶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의미를 모르고 좋은 곳을 따라다니며 즐기고 사니 문제가 된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만 알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자녀의 할 일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자녀(롬 9:8)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 금주의 말씀 묵상! 그레이스 김 권사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 2

I cry out to God Most High, to God,
who vindicates me.
PSALMS 57: 2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참고: 애니문 보험은 모든 실제 환자는 애니문 보험에 대한 그룹의 전문상담원을 상담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예수 부활하셨네

LA동부사랑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금)



우영화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ESCC), eastsarangweb@gmail.com
www.eastsarang.org

예수 부활하셨네

동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9:00(영어)
오전 11:00(한국어)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Email : easternchurch@gmail.com



김정오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3261

예수 부활하셨네

올림픽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예수 부활하셨네

한빛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예수 부활하셨네

서부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07:3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화~토)



김진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880 W. 22th St. Torrance, CA 90501
T.(310)328-7020 main@wpca.org https://wpca.org/

뉴욕지역 한인교회들 “부활의 소망 함께 나누자”

“우리는 박물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가, 부활한 주님은 갈릴리에서 선교하는 교회를 찾으신다”

올해 부활절에서 뉴욕지역 한인 교회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부활의 능력’이었다.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요11:25-26)는 제목의 설교에서 유진 오닐의 ‘나사로는 웃었다(Lazarus Laughed)’라는 희극을 소개하면서 “이 희극에서 작가가 강조한 것은 비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나사로의 집에는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웃음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 웃음의 집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찾아서 온 예루살렘 마을이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목사는 “우리고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는 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봐도 미국사

회를 봐도 이제는 성수수자인 사람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그들이 범까지도 바꾸고 있다. 지금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들은 움직이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수술까지 안내를 해주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의 어느 한 주는 부모의 동의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반대하면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신, 이 신앙을 얼마나 용감하게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참된 것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과연 이것이 나의 최선인지, 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맥시멈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활의 사건이 다만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로만



프라미스연합성가대가 부활절 성가 합창을 하고 있다. ©프라미스교회

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초대교회 박찬섭 목사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행13:30)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긴 설교를 담고 있다”면서 “바울은 이곳에 오기 위해 험한 산길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다. 평균고도 해발 1,100m, 최고봉은 해발 3,300m의 산맥이었고 강도들도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바울이 이같이 선교의 열정에 불탔던 이유에 대해 “복음이 있기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갈등, 험한 산지를 넘는 여정 등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복음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부활의 생동감 있는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목사는 “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감격을 잊지 않고 회복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의 육체가 바닥 치더라도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야기를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나의 소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복음의 힘이고, 부활의 감격이다. 이 기쁜 소식에 평생 감격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러한 열정에 불탔던 이유에 대해 “복음이 있기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갈등, 험한 산지를 넘는 여정 등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복음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부활의 생동감 있는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목사는 “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감격을 잊지 않고 회복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의 육체가 바닥 치더라도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야기를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나의 소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복음의 힘이고, 부활의 감격이다. 이 기쁜 소식에 평생 감격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러한 열정에 불탔던 이유에 대해 “복음이 있기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갈등, 험한 산지를 넘는 여정 등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복음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부활의 생동감 있는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목사는 “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감격을 잊지 않고 회복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의 육체가 바닥 치더라도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야기를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나의 소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복음의 힘이고, 부활의 감격이다. 이 기쁜 소식에 평생 감격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러한 열정에 불탔던 이유에 대해 “복음이 있기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갈등, 험한 산지를 넘는 여정 등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복음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부활의 생동감 있는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웨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부활절 성찬 연합예배



웨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2024 부활절 성찬 연합예배 ©기독일보

도를 붙들자고 권면했다.

이날 “마리아야”(요 20:1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민규 목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곁에 계셨음에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며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불평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앗아 가려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고 전했다.

웨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이민규 목사)는 지난 31일 부활주일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감격을 나눴다.

이민규 목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열정에 불탔던 이유에 대해 “복음이 있기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갈등, 험한 산지를 넘는 여정 등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복음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부활의 생동감 있는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목사는 “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감격을 잊지 않고 회복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의 육체가 바닥 치더라도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야기를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나의 소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복음의 힘이고, 부활의 감격이다. 이 기쁜 소식에 평생 감격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러한 열정에 불탔던 이유에 대해 “복음이 있기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갈등, 험한 산지를 넘는 여정 등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복음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부활의 생동감 있는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활기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꿈꾸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동성애 및 자녀 성적체성 관련 악법 규탄!

OC장로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최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성 정체성과 성 평등법 등 악법들이 인권의 탈을 쓰고 쓰나미처럼 교계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 침투하고 있다. 특히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3년간 학부모 가정, 교회들을 위협하는 많은 악법들이 통과되었으며,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등의 악법들은 자녀 정체성(젠더성향, SOGI)에 관련하여 학부모들을 제외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까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악의 가치관이 변질되고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전도 되어가는 상황에서 OC장로 협의회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선 포

1. 각 학교의 목회자와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학부모의 권리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자.
2. 캘리포니아에서 발의되고 시행되고 있는 악법들이 금지되도록 공예배나 기도모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3. 성적체성을 혼란시키는 여러 악법을 막을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지원한다.
4. 자녀학교와 교회학교 간에 긴밀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5.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미 연방상원에 상정되어 있는 성 평등법(H.R.5) 동성결혼 합법화에 적극 반대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국내 모든 기독교 단체,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 다른 모든 기관들과 힘을 합하여 싸워 나갈것을 결의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

905 S. Euclid St. #108, Fullerton, CA 92832 / email: kihopai@gmail.com

회장: 배기호 장로 **이사장:** 김영수 장로, **사무총장:** 김성웅 장로 **외 회원일동**

강신욱, 권석대, 권재현, 김도영, 권혁웅, 김려선, 김봉호, 김생수, 김영수, 김용진, 김용호, 김종구, 김종근, 김종대, 김성웅, 김창달, 김태수, 노명수, 박광원, 박종갑, 배기호, 서경원, 서창석, 신명철, 정용섭, 신승현, 신영세, 신준목, 신진, 엄재선, 오요한, 우영환, 이강원, 이종돈, 이창립, 임용, 임성택, 장희선, 전송택, 전홍, 정석봉, 정재영, 정정건, 정창섭, 조봉남, 조욱장, 주홍, 최윤종, 풀박, 한창훈, 황준호, 황치훈, 신준목, 문덕상, 박태하, 최영민, 허무량

지원교회: 남가주사랑교회(노창수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김경섭 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외

동참기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심상은 목사), OC목사회(이원석 목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신용 안수집사), OC여성목사회(김선옥 목사),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이선자 목사),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강순영 목사)

미디어기관: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일보,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헤럴드, 사람과사회(People & Society), 미주복음방송

California의 악법들로부터 **청원서 서명운동**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 550,000개**
-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된 시민권자**인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 **70,000개 이상**의 싸인
- 한인 서명 마감: 2024년 4월 13일
- 서명용지 및 설명서 보급장소
OC: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사우스베이: 토렌스 조은교회
LA: 미주성서회 운동본부, LA 동부: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주민 발의안이 통과 되면?

1. 안전: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샤워실/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함
2. 공평: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3. 학부보 권리 보호: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서명에 관한 안내나 서명용지를 받기 원하시면 서명운동본부(310.995.3936, 323.578.7933)나 **TVNEXT.ORG** 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